

고대 중국의 사치 심리와 양상

— 『태평광기·사치』를 중심으로

강종임*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물량적 사치 : 다다익선(多多益善)
- III. 경쟁적 사치 : 용쟁호투(龍爭虎鬪)
- IV. 나오는 말

국문초록

고대 중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사치는 보편적 덕목이 아니었다. 사치에는 막대한 자금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애초에 그것은 극소수의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치가 지극히 사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소비되는 동안 훨씬 많은 사람은 검소함을 미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태평광기·사치』에 묘사된 고대 중국인들의 사치 양상을 ‘다다익선’과 ‘용쟁호투’, 즉 물량적 사치와 경쟁적 사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태평광기·사치』에 묘사된 군상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되도록 많은 물량으로 과시했으며, 상대를 이기려는 치열한 경쟁은 목숨보다 중요했던 그들의 체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다익선’과 ‘용쟁호투’의 사치 양상은 현재진행형이며, 중국의 소비문화를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

키워드 : 사치, 물량, 경쟁, 과시, 체면, 문화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들어가는 말

유교적 삶의 방식이 가치 우위에 있었던 고대 중국에서 ‘안빈낙도’할 줄 아는 군자의 삶은 언제나 칭송받을 만한 것이었다. 예를 지킴에 있어서도 ‘사치하기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다.’¹⁾라는 공자의 언급은 전통 시기 유교문화권에 속했던 여러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했던 가치이기도 하다. 중국 고대 왕조 말기 많은 경우에 통치자의 무도한 사치와 향락이 망국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시대를 뛰어넘어 사치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으로 각인시켰다.

유가는 이러한 교훈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인의 인격 수양과 도덕성을 전제로 한 근검절약을 유교적 경제 관념의 중요한 근간이자, 통치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정하였다. 국가의 재정 상황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통치계급의 이러한 덕의 유무에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또한 백성의 경제적 궁핍이나 육체적 고통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前漢 시기(기원전 81년)에 있었던 유명한 鹽鐵 회의의 논쟁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 국가에서 개와 말을 기르고 금수를 사육하는 것이 어찌 단지 주방의 썩은 고기와 마구간의 살찐 말의 비용 정도이겠습니까. 불필요한 관원과 급하지 않은 공사와 유행 따라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과 공이 없으면서도 국가의 녹을 받아 입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부족하고 백성은 궁핍한 것입니다.²⁾

사치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기에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

1) 禮, 與其奢也寧儉. 『論語 八佾』

2) 今狗馬之養, 蟲獸之食, 豈特腐肉肥馬之費哉! 無用之官, 不急之作, 服淫侈之變, 無功而衣食縣官者衆, 是以上不足而下困乏也.(桓寬 저, 김한규·이철호 역, 『염철론』, 서울: 소명출판, 2002, 117쪽.)

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가족과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역시 사치는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중국의 사치와 향락은 그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오히려 비교 우위적 가치를 가지는 근검절약이라는 행동 양식보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주목을 받고 회자되었다. 그것은 현실 생활에서는 감히 생각해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역사에 기록된 특정 인물들의 호화로움과 사치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언제나 일상을 넘어서는 신기한 것이었고, 희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특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치가 바람직한 행동 양식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사회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사치와 향락은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인간의 내밀한 시기와 질투,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수양제가 누렸던 사치의 면면을 전해 들으며 당 태종이 ‘입으로는 그 사치스러움을 나무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성대함에 탄복’³⁾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치를 인류의 문명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치는 동물적인 것에서 인간적인 것을 분리해내는 결정적인 단절 행위이고, 유용성에 앞선 행위이다. 또 종교적인 욕망이나 예술적인 욕망만큼 고상하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지만, 문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기도 하다.⁴⁾

이는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와 더불어 사치를 경계하는 사회적 관념이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뇌리에 사치의 부정적인 측면이 각인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구별된다.

또 몇천 년 동안 지속된 계급사회 속에서 사회 불평등을 드러내는 사치가 존재해왔다. 다시 말해서 호화스러운 標示나 비생산적인 소비를 매개로 한 돈이 많이 드는 격화된 경쟁과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경쟁으로서 사치가 지속

3) 口刺其奢, 而心服其盛.(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 권10, 서울: 학고방, 2004, 300쪽.)

4) 장 카스테레드 지음, 이소영 옮김, 『사치와 문명』, 서울: 뜨인돌, 2011, 5-9쪽.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귀족 사회에서 사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 질서의 유래를 표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서 계급사회에서 사치는 절대적인 구분 방식과 사회적 자기 확신의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다.⁵⁾

『태평광기·사치』에는 총 36 조목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것들은 唐代 이전 몇몇 일화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호사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극도의 사치와 향락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태평광기·사치』에 묘사된 고대 중국인의 사치 양상을 물량적 사치와 경쟁적 사치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의 가치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독보적이라는 명예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심리는 제한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어쩌면 중국인들의 이러한 심리는 현재진행형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사치의 맹목적이고 소모적인 경쟁이 오히려 섬세한 문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추단해보고자 한다.

II. 물량적 사치 : 다다익선(多多益善)

고대 중국인들이 사치를 부리는 대상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건축물이다. 『詩經·大雅·綿』에서는 先周 시기 고공단보가 周原에 와서 창업하며 도읍을 건설하는 상황을 묘사했다. 일꾼들이 땅을 다지고[縮版以載], 사당을 짓고[作廟翼翼], 성벽을 쌓는[百堵皆興] 등 매우 활기찬 내용과 성벽이 완성됨과 함께 종고 소리가 끝없이 이어지는[鍾鼓不勝] 장면은 흥겨운 단합과 함께 웅장함마저 느껴진다.⁶⁾ 새로운 국가의 창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득 품은 민중들의 희열이 성벽을 축조하는 과정에 그대로 배어난다. 물론 민중들의 희열

5) 질 리포메즈카엘리에트 루 지음, 유재명 옮김, 『사치의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4, 37-38쪽.

6) 쏜지 지음, 홍승직 옮김, 『중국물질문화사』, 서울: 알마출판사, 2017, 173쪽 참조.

은 모든 역사를 통해 일관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도한 건축 공사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계층 역시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국가의 존재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 특히 천명을 받은 천자가 곧 국가의 정통성임을 입증하려 했던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거대한 건축물은 국가의 권위와 힘을 상징한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절대 권력을 가진 강한 군주일수록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또는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건축물에 집착했다.

구체적인 건축물의 명칭은 아니지만 거대한 규모와 사치스러움을 상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桀王의 ‘주지육림’을 비롯하여 진시황의 아방궁, 조조의 동작대 등 역시 그들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흔적을 담고 있는 건축물 외에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지은 아름다운 궁전이나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치스럽게 꾸민 저택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오왕 부차는 姑蘇臺를 축조하여 3년이 되어서야 완성했다. 그 둘레가 구불구불했고, 가로 거리가 5리에 달했다. 호화로운 치장 공사를 하느라 수많은 인력을 거의 다 소비했다. 그곳에 궁중 기녀 천 명을 머물게 했다. 또 春霄宮을 따로 세워 밤새 술을 마셨으며, 천 섬이 들어가는 술병을 만들었다. 또 커다란 연못을 파고 그 안에 靑龍舟를 만들어 가기와 악대를 늘어놓고서 날마다 서시와 물놀이를 했다. 또 궁중에 靈官과 館娃閣을 짓고 구리 문지도리에 옥 문지방을 설치했으며, 궁중의 난간은 모두 주옥으로 장식했다.⁷⁾

고소대는 오왕 부차의 아버지 합려가 축조하기 시작하여 부차가 마무리한 누대이다. 그것은 7년에 걸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의 강소성 남경 靈臺山에 그 유적지가 있다. 『목자』에는 고소대를 7년이나 걸쳐 축조했으

7) 吳王夫差築姑蘇臺，三年乃成。周環詰屈，橫亘五里，崇飾土木，殫耗人力。宮妓千人，又別立春霄宮，爲長夜飲，造千石酒鍾。又作大池，池中造靑龍舟，陳妓樂，日與西施爲水戲。又於宮中作靈館娃閣，銅鋪玉檻，宮之欄楯，皆珠玉飾之。(『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271쪽.)

나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⁸⁾ 이것을 기록한 것은 부차가 백성에게 은덕을 베풀지 않은 채 교만과 태만으로 민심을 잃은 결과임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차의 이야기는 當代는 물론이거니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던 만큼 그의 사치 역시 세간의 관심거리였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묘사된 것처럼 고소대의 사치스러움은 거대함, 화려함, 아름다움 등에 대한 강조로 묘사된다. 예컨대 가로 거리가 5리(약 2.5Km), 천 명의 기녀, 천 섬이나 들어가는 술병 등은 그 규모를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특히 커다란 연못은 殷나라 紂王의 주지욕립을 연상케도 하며, 주옥으로 장식된 건축물에 대한 묘사는 왕조 말기 제왕들의 방탕과 탐욕을 드러내는 전형처럼 여기게 한다.

이런 사치는 인간의 내밀한 욕망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대 중국의 건축에 대한 심미적 욕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절정에 도달한 것은 춘추전국시대 이후의 일이다. 이때는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른바 ‘미륵미환(美輪美奐)’⁹⁾이라고 불리는 웅대하고 아름다운 건축에 대한 열기가 한때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건축의 목적이 비바람을 막아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화려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당시의 신혼 귀족들로부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그들은 이것을 중요한 취미의 대상으로 삼았다.¹⁰⁾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전 인류의 보편적 성향이다. 물론 아름다움이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원시 인류의 옷깃이나 소매에 달린 각종 장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실용적 가치 못지않게 다양한 미적 요인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름다운

8) 夫差遂筑姑蘇之台，七年不成。『墨子·非攻中』

9) 美哉輪焉，美哉奐焉。『禮記·檀弓』

10) 이택후 지음, 윤수영 옮김, 『미의 역정』, 서울: 동문선, 1991, 186쪽.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인지신경과학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뇌 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Michael S. Gazzaniga) 교수는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은 성별, 나이, 인종, 지역, 문화의 차이와 무관하며 인류의 감각, 인식, 인지 능력의 발달과 함께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 온 결과’라고 말한다.¹¹⁾

건축에 대한 심미적인 취향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하지만 그것을 극대화한 황제 중의 하나로 漢나라 靈帝를 들 수 있다.

후한 영제 초평 3년에 서쪽 원림에 裸遊館 10칸을 세웠는데, 초록 이끼를 캐서 계단을 덮고 도랑물을 끌어들여 섬돌을 빙 둘러 흐르게 했다. 裸遊館 주위를 흐르는 도랑물은 맑고 깨끗해서 작은 배를 타고 떠다니며 유람했다. 영제는 궁인들을 이 배에 태운 뒤 피부가 옥빛 같고 몸이 가벼운 자를 뽑아 상앗대와 노를 잡고 도랑 안을 흔들거리며 떠다니게 했다……

도랑 안에는 가지 길이가 1丈이나 되고 수레 덮개만큼 크 연꽃을 심었는데 그것은 남쪽 나라에서 바친 것이었다. 그 잎은 밤엔 펼쳐졌다가 낮엔 오므라들었고 즐기 하나에 연꽃 4송이가 한꺼번에 자랐으므로 ‘夜舒荷’라고 이름 붙였다. 또는 달이 뜨면 잎이 펼쳐진다고 해서 ‘望舒荷’라고도 불렀다. 영제는 한여름에 裸遊館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밤새 연회를 즐기고는 이렇게 탄식했다. “만약 만 년 동안만 이렇게 지낸다면 上仙이 되련만!”¹²⁾

이 내용을 통해 후한 영제의 심미적인 취향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아마도 영제는 자신의 향락적인 삶에 꽤 만족한 듯하다. 그가 안타까워 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 제한이다. 자신에게 만 년의 시간이 허락된

11) 박만준, 『신경미학, 뇌와 아름다움의 진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13-17쪽 참조.

12) 靈帝初平三年, 于西園起裸遊館十間. 採綠苔以被階, 引渠水以遶砌. 周流澄澈, 乘小舟以游漾. 宮人乘之, 選玉色輕體者以執篙楫, 搖蕩于渠中…… 渠中植蓮大如蓋, 枝長一丈, 南國所獻也. 其葉夜舒晝捲, 一莖有四蓮叢生, 名曰夜舒荷. 亦言月出見葉舒, 亦名望舒荷. 帝乃盛夏避暑于裸遊館, 長夜飲宴. 帝嘆曰: 使萬年如此, 則爲上仙矣.(『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286-289쪽.)

다면 신선이 될 수 있으리라는 공허한 탄식을 통해 그의 평범하지 않은 사치를 반추할 수 있다.

이외에 제왕의 신분은 아니지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치로 유명한 인물들로서 西漢 시기의 거상인 袁廣漢과 한나라 光武帝의 외척이었던 郭況을 들 수 있다.

무릉의 부자 원광한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소유했으며, 집안의 하인이 8-9백 명이나 되었다. 북망산 아래에 동산을 만들었는데, 동서로 4리나 되고 남북으로 3리나 되었으며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 그 안으로 흘러들게 했다. 돌을 쌓아 산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10여 丈이었고 몇 리에 걸쳐 쪽 이어졌다. 흰 앵무새, 자줏빛 원앙새, 꼬리털 긴 소, 푸른 토끼 등 기괴한 금수가 그 사이에 모여 있었다. 모래를 옮겨와 작은 섬을 만들고 흐르는 물을 쳐서 파도를 일으켰으며 그 안에서 갈매기와 학을 길렀는데, 그것들이 품어서 깨어난 새끼들이 숲과 연못에 널리 퍼져 있었다. 진기한 나무와 기이한 풀이라면 심겨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집들은 모두 빙 둘러서 이어져 있고 그 사이로 기다란 회랑이 있었는데 한참 동안을 둘러보아도 다 볼 수 없었다.¹³⁾

원광한은 중국 역사상 맨 처음으로 개인의 園林을 소유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북망산 아래 조성한 원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쉽사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동산에서 키웠다는 갖가지 기이한 금수들과 모래로 만든 작은 섬 등은 기묘한 아름다움마저 느끼게 한다. 이런 원림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막대한 재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비롯해 저택이나 정원에 대한 사치를 묘사한 많은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대 중국인의 저택이나 정원에 대한 집착이다.

13) 茂陵富人袁廣漢藏鐵巨萬，家童八九百人。於北芒山下築園，東西四里，南北三里，引流注其內。構石爲山，高十餘丈，連延數里。養白鸚鵡紫鸞，旄牛青兔，奇禽怪獸，積委其間。移沙爲洲，激水爲波。其中育江鷗海鶴，孕雛產鷄，延漫林池。奇樹異草，靡不具植。屋徘徊重屬，間以修廊，行之移晷，不能偏也。(『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279쪽.)

이처럼 호화로운 저택과 정원에 대한 묘사는 너무 많아 수를 셀 수가 없다. 이러한 사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부유함을 상징하는 보편적 취향이 되었다.

원광한과 같은 거부가 아니더라도 중국 고대사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사대부들은 저택을 꾸미는데 많은 돈을 썼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치스러운 것은 정원을 만들고 꾸미는 일이었다. 정원 하나 두는 데 적어도 은 1천 냥이 들지만, 그 정원 하나로 많게는 1만 금의 영예를 가질 수도 있었다.¹⁴⁾ 물론 그 영예로움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그들의 민족적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인용문에서 묘사된 원광한의 사치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돈, 사람, 동산의 규모와 동산에 가득한 진기한 사물들로 표현된다. 묘사 대상을 일일이 서술하여 나열한 내용은 漢代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인 賦를 연상시키며, 그러한 표현 기법은 그의 부유함을 형용하기에 효과적이다.

고대 중국의 사치를 묘사하고 있는 수많은 문장은 이런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이런 수사법은 얼마나 화려하고 진기하고 특별한 것들인지를 되도록 세세하게 보여주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중국식 설명문은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수사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가져다주곤 한다.¹⁵⁾

이렇듯 사치를 묘사한 문장들이 사치의 화려함과 다양함에 대한 묘사에 집중하는 반면, 다음의 이야기는 사치의 주체가 되는 인물의 취향을 묘사해 흥미롭다.

그는 수억 금의 재물을 모았고 하인이 4백 명이나 되었으며 금으로 그

14) 우런수 지음, 김의정 외 옮김, 『사치의 제국: 명말 사대부의 사치와 유행의 문화사』, 파주: 글항아리, 2019, 47쪽.

15) 마오샤오원 지음, 김준연·하주연 옮김, 『당나라 뒷골목을 읊다』, 파주: 글항아리, 2018, 333쪽.

룻을 만드느라 주조하고 단련하는 소리가 도성과 교외까지 진동했다……

정원 안에 높다란 누각을 세우고 그 위에 형석을 두어 금의 무게를 달았으며 아래에는 금을 보관하는 굴을 만들어 늘어선 무사들이 그것을 지켰다. 또 온갖 보물을 새겨 넣어 누대와 정자를 장식하고 대들보와 용마루 사이에 야광주를 매달아 놓았는데 그 광채에 눈이 부셨으며 낮에 보면 별과 같고 밤에 보면 달과 같았다……

낙양 사람들은 곽씨 집을 ‘옥주방에 황금굴’이라 불렀다. 곽황은 성격이 소심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비록 부유함과 권세를 가졌지만 문을 닫고 한적하게 지내면서 세상에 간여한 적이 없었기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¹⁶⁾

곽황은 광무제의 외척으로 그의 아들이 광무제의 딸인 옥양(涑陽) 공주와 혼인을 맺을 정도였으니, 그의 권세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부귀·사치와는 달랐다. 곽황이 “현인[士]을 대함에 공손하고 겸손하여 상당히 명성과 명예를 얻었다.”¹⁷⁾라는 점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온갖 보물로 꾸며 놓은 건축물이나 ‘옥 주방에 황금 굴[瓊廚金窟]’로 불릴 정도의 명성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때 곽황 역시 부와 사치를 멀리하는 인물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야기에서는 부와 권세를 과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세간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사치를 부릴지라도 그 주체의 인격과 태도에 긍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사치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유사한 예를 『사기·관안열전』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관중의 재산은 왕실의 재산만큼이나 많아 三歸와 反坫을 갖추고 있었으나 제나라 사람들은 이를 사치스럽다고 여기지 않았다.”¹⁸⁾ 왕실에 비할 많은 재

16) 漢郭況, 光武皇后之弟也. 累金數億, 家童四百人. 以金爲器皿, 鑄冶之聲, 徹于都鄙…… 于庭中起高閣, 厝衡石于其上, 以稱量. 下有藏金窟, 列武士衛之. 錯雜寶以飾臺榭, 懸明珠于梁棟間, 光彩射目, 晝視如星, 夜望如月…… 東京謂郭氏家爲瓊廚金窟. 況小心畏慎, 雖居富勢, 閉門優游, 未曾干世, 爲一時所知也. (『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285-286쪽.)

17) 恭謙下士, 頗得聲譽. 『後漢書·皇后紀上』(范曄撰,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3, 402쪽.)

18) 管仲富擬於公室, 有三歸、反坫, 齊人不以爲侈.(여기서 ‘三歸’는 성씨가 다른 세 여자를 세

산을 가졌으나 사치스럽다고 여기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관중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와 맞물려있을 것이다. 관중은 백성들이 실행하기 쉬운 정책을 펼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았다는 평을 받는 인물이다. 관중에 대한 백성들의 너그러운 시선을 볼 수 있다.

『說文解字注』에서 ‘奢侈’를 살펴보면, ‘奢’ 자의 사전적 의미는 과장하다, 과분하다는 뜻으로 ‘大’가 의미 부분이고 ‘者’가 소리 부분이며, ‘侈’ 자에도 ‘奢’의 뜻이 들어 있다.¹⁹⁾ 여기서 의미 부분인 ‘大’를 통해 ‘奢侈’라는 글자에 크다 많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치에서의 ‘크다[大]’라는 뜻은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 크기는 채울 수 없을 만큼의 크기이다. 그러기에 “인생에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대부분 끝이 없다.”²⁰⁾라고 했다. 사치의 양상이 다다익선인 이유이다.

온갖 보물로 잔뜩 꾸며 놓은 저택 자체는 심미적 관점에서 분명 아름다운 대상일 수 있다. 단조로움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기에 그에 대한 기호는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고대 중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방식과 태도는 사치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갖 사치를 부리더라도, 그 사람의 인품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관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중국 또는 유교 문화권에서 사치를 대하는 인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아내로 거느리는 것, 樓閣의 이름, 采邑의 명칭, 府庫의 이름 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反玷’은 제후들의 회맹에서 獻酬의 예를 행한 뒤에 빈 잔을 얹어 두는 받침대로서 일반인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다. 사마천 지음, 정범진 외 옮김, 『사기열전』 상, 서울: 까치, 1995, 17쪽.)

19) 奢, 張也. 從大者聲. ……侈, 一曰奢也.(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497쪽.)

20) 人生驕與侈, 有始多無終. 『明心寶鑑省心篇上』(范立本, 진성수 역, 『明心寶鑑』,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부, 2021, 141쪽.)

Ⅲ. 경쟁적 사치 : 용쟁호투(龍爭虎鬪)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남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사회 집단의 분화와 구조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이고, 다양한 계층 간의 구별 짓기는 각 계층이 갖고 있는 자본의 차이에 토대를 둔다.²¹⁾ 이러한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태평광기·사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거기에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부를 타인의 그것과 구별 짓고자 하는 경쟁적 사치가 곳곳에 묘사되어 있다.

진나라의 석승은 왕개와 호사를 다투었다. 왕개의 외조카인 진 무제가 한번은 높이가 2척 쯤 되는 珊瑚樹 하나를 왕개에게 주었는데 가지와 줄기가 무성했으며 세상에서 비할 만한 것이 드물었다. 왕개가 그것을 석승에게 보여주었더니 석승은 다 보고 나서 鐵如意를 들어 그것을 내리쳐 당장에 박살을 내 버렸다. 왕개는 너무 아깝기도 했으며 또한 석승이 자기의 보물을 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목소리와 안색이 바야흐로 거칠어졌다. 그러자 석승이 말했다.

“원망할 것 없소. 지금 그대에게 물어주겠소.”

그리고는 좌우 시종에게 명하여 산호수를 모두 가져오게 했는데 높이가 3척이나 되고 가지와 줄기가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멋있으며 눈부시게 광채 나는 것이 6-7개 있었고 왕개의 것과 비슷한 것은 아주 많았다. 왕개는 망연자실했다.²²⁾

이 이야기는 서진 시기를 살았던 석승과 왕개의 경쟁적인 사치를 담은 여러 일화 가운데 하나이다. 왕개의 산호수는 세상에 드문 귀한 보물이었으며, 게다가 최고 권력인 황제에게 하사받은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 희소가치는 이

21) 우련수 저, 김의정 외 옮김, 『사치의 제국: 명말 사대부의 사치와 유행의 문화사』, 파주: 글항아리, 2019, 8쪽.

22) 石崇與王愷爭豪，晉武帝，愷甥也，嘗以一珊瑚樹與愷，高二尺許，枝柯扶疎，世罕其比。愷以示崇，崇視訖，舉鐵如意擊碎之，應手丸裂。愷甚惋惜，又以爲嫉己之寶，聲色方厲。崇曰：不足恨，今還卿。乃命左右，悉取珊瑚樹。有高三尺，條幹絕俗，光彩溢目者六七枚，如愷比者甚衆。愷愴然自失。(『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289-290쪽.)

루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석승이 그 귀중한 물건을 단번에 내리쳐 박살을 내 버렸다. 이 모습은 부와 권력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 무례함의 의도가 흥미롭다. 석승은 자신의 산호수가 왕개의 것과는 비할 바 없이 더 멋지고, 더 많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었다.²³⁾ 막대한 부를 물려받은 석승과 황제의 외척이었던 왕개의 사치 경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 스케일과 기발함으로 역대 호사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왕개가 쌀을 찌서 말린 것으로 밥을 짓자, 석승은 양초로 밥을 짓고, 왕개가 푸른 능견으로 안감을 댄 보라색 비단천으로 길이 40리가 되는 장막을 만들자, 석승은 50리나 되는 비단 장막으로 대응하였다. 석승이 산초나무를 벽에 칠하자 왕개는 적석지를 벽에 칠하였다.²⁴⁾

위의 인용문 역시 왕개와 석승이 노골적인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위진 시기의 『世說新語·汰侈』에는 모두 12 조목의 사치와 관련된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석승과 왕개의 일화가 10 조목에 달한다. 이는 사치 경쟁과 관련하여 그들이 압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의 사치는 마치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검소함이 오랜 시간 미덕으로 여겨지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경쟁은 지극히 사치스럽다 못해 어리석고 소모적이다. 그들에게 사치는 자존심이고 체면인 것처럼 보인다. 황제의 인척인 왕개는 권력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평민 출신의 석승이 최대의 사치를 부리는 행위는 많은 귀족에게 용납

23) 석승과 왕개는 西晉 시기에 전설적인 사치 경쟁으로 이름난 인물이다. 그때 당시의 귀족들은 배금주의에 빠져 사치 경쟁에 몰두했다. 이러한 사치 경쟁은 현란한 六朝 문화를 탄생시킨 주요한 요인이었다.(이나미 리츠코 지음, 이은숙 옮김, 『사치향락의 중국사』, 서울: 차림, 1997, 61-67쪽 참조.)

24) 王君夫以(米台)繡襦爲釜, 石季倫用蠟燭作炊. 君夫作紫絲布步障碧綾裏四十里, 石崇作錦步障五十里以敵之. 石以椒爲泥, 王以赤石脂泥壁. 『世說新語·汰侈』(劉義慶撰, 임동석 역주, 『世說新語』, 서울:동서문화사, 2011, 1779쪽.)

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다.

진나라 석숭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꿩 머리털과 여우 겨드랑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림 그린 달걀을 먹고 조각한 뿔나무를 땀다. 그러니 하물며 위대한 위나라의 천왕이 호화롭게 사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⁵⁾

이는 北魏 시기 황실의 종친이자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하간왕 元琛(?-526)이 자신의 부를 석숭에 비유하여 언급한 것이다. 그가 다른 종친인 고양왕 元雍과 부유함을 다투었다는 사실이나, 그가 자신의 사치스러움을 두고 “내가 석숭을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운 것이 아니라, 석숭이 나를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²⁶⁾라고 말한 일은 꽤 유명하다.

석숭과 원침 사이에는 최소 2백 년이라는 시대적 간극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침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역사적 존재인 석숭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석숭이 비록 평민 출신이었지만 황제의 외척과 나란히 부를 견줄 만큼의 재력을 가진 이상 그가 행했던 전대미문의 사치는 후세 사치의 기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석숭의 이런 사치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렇게 관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마오샤오윈은 중국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로 인식되어 온 석숭의 기상천외한 사치가 후세 당나라 시기의 창의적인 사치에 비하면 줄부의 짓거리에 그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²⁷⁾

이러한 평가는 귀족들의 사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낭비를 하고, 진기한 소재를 소모품으로 흔적도 없이 써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귀족의 사치는 시대의 기념비적인 건조물인 만리장성이나 대운하 건설로 권력을 과시한 황제들의 사치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이런

25) 晉室石崇, 乃是庶姓. 猶能雉頭狐腋, 畫卵雕薪. 況我大魏天王, 不爲華侈.(『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295-297쪽.)

26) 不恨我不見石崇, 恨石崇不見我.(『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296쪽.)

27) 마오샤오윈, 같은 책, 172쪽 참조.

귀족의 사치심을 들여다보면, 퇴폐적인 분위기를 띤 귀족적 미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뭔가 범인과는 다른 일을 하여 남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화려함’과 결부되어 더욱더 세련됨을 응축한 사치 경쟁을 부추겼다.²⁸⁾

이처럼 남들과 다르고자 하는 욕망과 미의식이 결합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 당나라 大曆 연간에 재상을 지냈던 元載(713-777)의 총희였던 薛瑤英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원재의 총희 설요영은 시와 글씨에 능하고 가무에 뛰어났다. 그녀는 선녀 같은 모습에 옥 같은 얼굴을 지녔고 피부가 향기롭고 몸이 가벼운 것이 선과, 이광, 비연, 녹주라 하더라도 그녀보다 나올 수 없었다……

설요영은 어려서부터 향을 먹었기 때문에 피부에서 향내가 났다. 원재는 그녀를 침으로 삼아 금실로 짠 휘장 안에 머물게 하고, 각진요를 깔게 했는데 이 요는 구려국에서 나는 것이었다. 다른 말에 따르면 각진수의 털로 만든 것이라고도 하는데, 그 색깔이 아주 붉고 비할 데 없이 광택이 나며 부드러웠다. 용초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옷 한 벌의 무게가 2-3량도 되지 않았고 옷을 문쳐도 한 움큼도 되지 않았다. 원재는 설요영의 몸이 너무 가벼워 무거운 옷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나라에서 옷을 구해왔다.²⁹⁾

원재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처 왕씨의 혼수를 팔아 공부를 할 정도로 고학을 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실패 후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나 그는 당대 숙종과 대종 2대에 걸쳐 재상을 지냈다. 이처럼 그는 각고 끝에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러나 후에 재물을 탐하고 방자한 행동으로 인하여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³⁰⁾

28) 이나미 리츠코 지음, 같은 책, 66쪽.

29) 載寵姬薛瑤英能詩書，善歌舞，仙姿玉質，肌香體輕，雖旋波移光飛燕綠珠，不能過也。……而幼以香啗之，故肌香。及載納爲姬，處金絲之帳，却塵之褥，出自勾欄國。云却塵獸毛爲之，其色紅殷，光軟無比。衣龍綃之衣，一襲無二三兩，搏之不盈一握。載以瑤英體輕，不勝重衣，故于異國求之。(『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329쪽.)

30) 載在相位多年，權傾四海，外方珍異，皆集其門，資貨不可勝計。……名姝異樂，禁中無者有之。……及得罪，行賂無嗟惜者。……遣中官于萬年縣界黃台鄉毀載祖及父母墳墓，斫棺棄柩。『舊唐

『태평광기·사치』 권237에서는 원재가 사저에 지은 芸輝堂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이 대부분 제왕과 비길만하다고 기록하고 있다.³¹⁾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원재가 총애하던 설요영이라는 첩이다. 이야기에서는 원재가 애지중지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천하절색의 황후 조비연이나 석송의 애첩 녹주도 견줄 수 없을 정도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녀의 아름다움은 천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설요영이 어렸을 때부터 향을 먹거나 바르게 하여 피부에서 향내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향을 먹여서 그 향이 피부에 배어나게 할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양의 향을 먹었는지 생각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하다. 사고의 발상 자체도 기발하지만 수많은 여인을 뛰어넘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던 극한의 욕망을 보는 듯하다.

이외에도 한없는 사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경쟁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後魏의 왕후·외척·공주들은 산과 바다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강과 숲의 풍요로움을 차지했으며, **다투어** 동산과 저택을 지으면서 서로 **과시하고 경쟁했다**. 높은 대문과 화려한 집에 창문이 즐비하고 방들이 이어져 있었으며 높이 솟은 館에서는 바람이 일고 층층의 누각에서는 안개가 피어났다.³²⁾

양귀비 자매는 **다투어** 車服을 장식하여 소가 끄는 수레 한 대를 황금과 비취로 장식하고 주옥을 섞어 넣었는데 수레 한 대를 치장하는 데 들 어간 비용이 수십 만 관을 훨씬 넘었다. ……다투어 명마를 사서 황금으로 재갈을 만들고 수놓은 비단으로 障泥를 만들었다.³³⁾

書·元載傳』

31) 元載造芸輝堂于私第…… 其余服玩奢僭, 率皆擬于帝王家(『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329쪽.)

32) 後魏王侯外戚公主, 擅山海之富, 居川林之饒, 爭修園宅, 互相誇競. 崇門豐室, 阿戶連房, 飛館生風, 重樓起霧.(『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293-297쪽.)

33) 貴妃姊妹競飾車服, 爲一犢車, 飾以金翠, 間以珠玉, 一車之費, 不啻數十萬貫…… 競購名馬, 以黃金爲銜蹻, 組繡爲障泥.(『태평광기·사치』, 같은 책, 310-311쪽.)

위의 인용문에는 유독 서로 사치를 ‘다투어[爭]’ ‘경쟁[競]’하고 ‘과시[誇]’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특정 계층인 귀족들이 일삼는 극도의 사치는 새삼 특별한 것도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심리 상태를 경쟁 상대와 겨루거나 과시로 묘사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들의 사치 정도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며, 부와 권력은 언제나 경쟁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이므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체면, 과시 등 개인의 심리적인 욕구에서 시작된 경쟁 심리는 이후 단순한 욕망에 머물지 않았다. 이것이 다양한 오락거리로 옮겨가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대체로 곡예의 경우에는 두 班으로 나누어 우열을 판정하였다.”³⁴⁾라는 『교방기』의 기록은 음악과 춤과 같은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노래로 관직이 오르고 춤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기도 했다.³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무로서 우열을 다투고자 하는 심리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진취적이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唐代에는 이런 경쟁의 심리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우열을 판가름하기 위한 경쟁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체현된다. 대표적으로 唐代에 흥행했던 鬪茶, 鬪草, 鬪香³⁶⁾ 등을 들 수 있다.

차, 화초, 향 등은 특정한 巨富나 귀족계층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사물이다. 사치 경쟁은 좀 더 일상적인 향유 대상을 중심으로, 그

34) 凡戲輒分兩朋, 以班優劣.(손계·최령흠 지음, 최진아 옮김, 『북리지·교방기』, 서울: 소명출판, 2013, 179-183쪽.)

35) 衛子夫以歌進, 趙飛燕以舞寵.(『북리지·교방기』, 178쪽.)

36) 鬪茶는 당나라 때 建州에서 차를 재배하던 농민들 사이에서 차를 따고 만드는 기술을 겨루는 것에서 시작된 이후 문인들 사이에서 點湯과 擊沸를 겨루는 것으로 발전한다. 鬪草는 사람들이 경기 당일 각자 풀잎을 따고 시간이 되면 한데 모여서 누가 딴 꽃이나 풀의 품종이 가장 다양하고 희귀한지 겨룬다. 鬪香은 귀족들이 각자 기이하고 진기한 향을 가져와 경기 현장에서 향료와 냄새의 우열을 품평해서 승부를 가린다.(마오샤오원, 같은 책, 327-328쪽, 337쪽, 345-347쪽참조.)

리고 더 넓은 대중 속으로 확대되었다. 또 거기에는 낭만적인 詩意를 담고 있어 문화의 향유라는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태평광기·사치』에 묘사된 맹목적인 물량적 경쟁과 비교해본다면, 차와 화초, 향을 견준다는 것은 심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겨루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 역시 겨루기라는 형식으로 행해진 이상 경쟁 심리에 근간을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로의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소모적 사치 경쟁에 비하면 상당히 품격 있는 겨루기로 승화된 것이다. 더 이상 물량적 다다익선의 가치가 아닌 심미적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기 위한 경쟁으로서 이러한 경쟁 문화는 정교한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IV. 나오는 말

『태평광기·사치』를 통해 본 고대 중국의 사치 양상은 다다익선과 용쟁호투로 요약할 수 있다. 『태평광기·사치』에 묘사된 군상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되도록 많은 물량으로 과시했으며, 상대를 이기려는 치열한 경쟁은 목숨보다 중요했던 그들의 체면이었음을 읽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들의 사치는 실용성이 전혀 없는 곳에 엄청난 소비를 하는 ‘과시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구분함으로써 사회계층, 계급 구분의 상징이 된다.³⁷⁾ 여기에서 인간의 경쟁적인 탐욕과 과시의 극한을 볼 수 있다. 이들 사치의 주역들이 내뿜는 광기와 열정과 맹목적 추구는 역동적이기까지 하다.³⁸⁾

고대 중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사치는 전혀 바람직한 덕목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치에는 막대한 자금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애초에 그것은 극소수의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37) 김지현, 「사치로 바라본 명말 사대부의 문화사—우륵수의 사치의 제국(글항아리, 2019)을 읽고」, 『한국문화와예술』 제32집, 2019, 382쪽.

38) 이나미 리즈코 지음, 같은 책, 3쪽.

들의 사치가 지극히 사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소비되는 동안 훨씬 많은 사람은 검소함을 미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치는 유용함에 앞서며 문명에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태평광기·사치』에서 보이는 물량적, 경쟁적 사치 양상은 진취적이고 윤희한 경쟁 문화가 꽃을 피웠던 唐代 이후 점차 세련된 미의식과 결합해 맹목적 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정교한 문화를 양산하게 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또 인간의 감각적 쾌락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사람의 천성과 부합한다고 여겨 인생 가치의 일면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인식한 명대에 이르러서는 사치가 오히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³⁹⁾

이런 역사적 단계를 밝힌 ‘다다익선’과 ‘용쟁호투’의 사치 양상은 현재진행형이며, 중국의 소비문화를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성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역사 발전과 함께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와 변화를 야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39) 우런수 지음, 같은 책, 84-85쪽 참조.

參考文獻

- 楊伯峻 譯注,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1996.
- 王文錦 譯解, 『禮記譯解』, 北京, 中華書局, 2001.
- 范曄 撰,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3.
- 劉昫 等撰,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3.
-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 李昉 等撰, 『太平廣記』, 北京: 中華書局, 1994.
- 목자 지음, 신동준 옮김, 『목자』, 고양: 인간사랑, 2014.
- 桓寬 지음, 김한규·이철호 역, 『엄철론』, 서울: 소명출판, 2002.
- 李昉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 권10, 서울: 학고방, 2004.
- 사마천 지음, 정범진 외 옮김, 『사기열전』 상, 서울: 까치, 1995.
- 범립본 지음, 진성수 역, 『명심보감』,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부, 2021.
- 유익경 지음, 임동석 역주, 『세설신어』, 서울: 동서문화사, 2011.
- 손계·최령흠 지음, 최진아 옮김, 『북리지교방기』, 서울: 소명출판, 2013.
- 장 카스테레드 지음, 이소영 옮김, 『사치와 문명』, 서울: 뜨인돌, 2011.
- 질 리포베즈카·엘리에트 루 지음, 유재명 옮김, 『사치의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4.
- 이택후 지음, 윤수영 옮김, 『미의 역정』, 서울: 동문선, 1991.
- 박만준, 『신경미학, 뇌와 아름다움의 진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21.
- 우련수 지음, 김의정 외 옮김, 『사치의 제국: 명말 사대부의 사치와 유행의 문화사』, 파주: 글항아리, 2019.
- 마오샤오원 지음, 김준연·하주연 옮김, 『당나라 뒷골목을 읊다』, 파주: 글항아리, 2018.
- 이나미 리즈코 지음, 이은숙 옮김, 『사치향락의 중국사』, 서울: 차림, 1997.
- 김지현, 「사치로 바라본 명말 사대부의 문화사-우련수의 사치의 제국(글항아리, 2019)을 읽고」, 『한국문학과예술』 제32집, 2019.

Abstract

Ancient Chinese Luxurious Minds and Aspects

— Focusing on *Taepyeong Gwanggi · Luxury*

Kang, Jong Im

Luxury was not a universal virtue for a long time in ancient China. Luxury must presuppose the power to mobilize enormous funds and labor, and it was originally centered on very few classes. While their luxury was consumed in a way that relieved their extremely private desires, far more people were forced to accept frugality as a virtue.

In this study, the luxury aspects of ancient Chinese described in *Taepyeong Gwanggi · Luxury*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more, the better’ and ‘the dragon wars, the tiger battles’ that is, volume luxury and competitive luxury. The military figures described in *Taepyeong Gwanggi · Luxury* showed off their superiority with as much quantity as possibl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fierce competition to beat the opponent was their face, which was more important than life. The luxury aspects of ‘the more, the better’ and ‘the dragon wars, the tiger battles’ are ongoing and are the basis for understanding China's consumption culture.

Key words : Luxury, quantity, competition, flaunting, decency, culture

투 고 일 : 2023. 10. 10. / 심 사 일 : 2023. 10. 15. ~ 2023. 11. 15. / 게재확정일 : 2023. 11. 20.

